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각이란 작은 칼날보다 시퍼렇다

‘각 가정과 같이’, 문장에서 ‘날날’ 의미로 사용되는 이때의 ‘각’은 관형사로 뒷 말과 띄어 쓴다. 현대인의 대화에서 ‘각’이라는 관형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학습이 3학년(5월 27일), 2학년(6월 3일), 1학년(6월 8일) 각 순서에 의해 등교 학습으로 전환되었다.

90여 일의 공백을 깨는 시골벽적 녀석들의 수다가 그리웠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원격 학습과 등교 학습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등교의 모습과 수업의 형태를 만날 수 있다.

물론 말할 것도 없다. 등교 학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다.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 19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공문과 지침에 학교 현장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집단사고로 잘 준비해서 3학년, 2학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른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앞서면서 1학년이 학교에 왔다. 설렘으로 잠을 설쳐 녀석도 있었어. 아무런 지시도 모를 낯선으로 어찌어찌 등교한 녀석도 모두 다 분명한 것이었다.

신입생은 낯선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선배들은 신입생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이날을 기다렸을 것이다. 이 녀석들에게 매일 꽃길만 놓인 것은 분명 아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배우고 나누며 성장할 것은 분명하다.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등교하는 신입생의 얼굴에 생기가 돈다. 이들을 맞이하는 친구, 선배, 후배, 선생님의 박수 소리가 우렁차다.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성장통을 함께 나누며 가야 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어찌 보면 삭막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간략한 입학식을 학부모도 외부인사도 없이 마쳤다. 이어서 담임선생님의 안내로 학교 공간 전반을 둘러본다. 뜨거운 태양이건만, 그 누구도 불평불만 없이 모교가 된 캠퍼스를 머리에 आरो세기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후배에 대한 궁금함으로 치자면 2, 3학년 선배가 단연 ‘갑’이다. 그들은 자꾸만 신입생에게 눈이 간다. ‘어디 보니?’, ‘신입생 중 누구 아는 동생이 있나?’ 라는 질문에도 눈은 여전히 신입생에게 머물며 걸어간다. 부디, 모두에게 올 한 해에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행복한 아픔’ 보다는 웃으며 나눌 수 있는 ‘추억 쌓기’가 가득하길 소망한다.

두 다리를 버티고 서서 각이란 작은

다 잡고 삼학년을 시작으로 90여 일 늦게 등교 학습이 시작 되었다. 발열 검사 시간에 검사는 일도 없다는 뜻이 가리 두기도 남의 일, 일편단심 신입생과 눈 맞추기에 정신이 없었 이성에 대한 본능인가? 발열 검사가 싫은 건가? 그런데 왜? 녀석들은 말이 없고 눈에 답이 급급하다

선배의 노하우로 속을 드러내 보이 지도 않고 매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영상이 노로 송출되는 대단한 녀석들이 다 누가 바라보기도 하면 허공을 향해 마치 남의 일인 듯 각이란 작은 칼날보다 더 퍼렇게 갈 아시키고 시리다 못해 시퍼렇다

박여범, 각이란 작은 칼날보다 시퍼렇다 전문-속을 드러내 보이지도 않고 마치 남의 일인 듯 태연하니 말이다.

각이란 작은 칼날보다 더 퍼렇게 갈 아시키고 시리다 못해 시퍼렇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나는 이 녀석들처럼, 강하고 아무렇게 성장한 신입생들을 만날 수 있을까?

들은 잘도 견뎌 주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득에서 약간의 빗겨나기도 화를 내거나 긴 한숨을 내쉬곤 한다.

원격수업이다 보니, 녀석들이 누려온 가장 큰 행복은 아마도 컴퓨터일 것이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그리하였겠지만, 더욱 그 힘을 받아 떨어 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메인화면에는 e-학습터나 교육 방송을 화려하게 진열 해두고, 새로운 창 게임방에서 열심히 손가락 운동을 하며 온갖 즐거움의 비명을 내질렀을 것이다.

통학버스 탑승부터 발열 검사,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에 들어가기 전 다시 시작되는 검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신입생과 아이폰택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성에 관한 관심이다. 그럼에도 너무 지나쳐 본능에 가까운 흡사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열이 올라 발열 검사가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매의 눈으로 낯선 전입생이나 신입생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두 눈 부릅뜨고 수컷의 본능으로 미래의 동반자를 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지만 그래서 더 대단하다. 참, 대단한 녀석들이다.

각이란 작은 칼날보다 더 퍼렇게 갈 아시키고 시리다 못해 시퍼렇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나는 이 녀석들처럼, 강하고 아무렇게 성장한 신입생들을 만날 수 있을까?

사설

폭염철 안전 관리 대비해야

6월 중순 초입인데 더위가 심상치 않다. 7월 중하순에나 있을 법한 폭염에 한반도가 지글거리고 있다. 특히 전주가 그러했는데 며칠 전의 35.1도는 102년만의 기록이다. 체온에 육박하는 기온에 불볕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올 여름 더위가 특심할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 걱정이 된다. 오래 전 1994년도와 재작년인 2018년도와 생각나는 그것은 그래서이다. 뜨거운 폭염이 장기화되면 건강을 위협당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폭염이 닥치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다.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때 이르게 폭염이 찾아온 지금 전북도는 미리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겠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늘 보도되는 게 안전사고 뉴스이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에 무심경하다. 그러나 전북도는 그런 사람들도 챙겨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되지 않게 미리 계몽하고 또 고령의 노인들을 포함해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체크해 파악해야 한다. 아직 피서지를 언급할 때는 아니지만 며칠 전 같은 폭염이 지속되면 때 이르게 해수욕장이 개장될 터이다. 해수욕장 하면 늘 떠오르는 게 안전 사고이다. 따라서 피서

지를 찾는 이들은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다친 불행이 자신과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해마다 피서지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데 피서객들이 안전요원의 주의 사항 고지를 들은 척도 않고 있음이 그 주된 이유일 터이다. 취객이나 젊은이 중에는 무모하게도 위험 구역에서 헤엄치다가 일을 내고 있는데 당국은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안전하다 싶은 풀장에도 지난날에 문제가 많았다. 안전요원이 자기의 책무에 소홀히 하고 있음이 빈번하게 확인되었던 것이다. 아들의 경우, 보호자의 과실이 먼저 지적돼야겠으나 수영에 익숙한 아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은 것은 수영장 안전 요원의 책임이 크다. 안전하다는 수영장에서 이제 더 이상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안전 사고 예방으로 모 든 게 끝이 아니다. 공공 위락시설이며 수영장이 여름철 위생의 사고 재대로 늘 지목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플로 논병이며 다른 성가시기도 귀찮은 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들의 형편이 어떤지 궁금하다

벤처기업들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가파르거나 어려운 오늘이다. 벤처기업들 속에서 어렵다고 호소할 때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알뜰한 일자리마저 줄고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여기 짚어보고 싶은 게 있다. 도내 기업 생존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또한 어떤지 궁금하다. 도내 벤처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말이다.

전북도에게 다시 묻기니와 벤처기업들의 형편이 궁금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악화됐으면 악화됐지만 나아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러나 그런 짐작과는 따로 벤처기업들의 실제 상황을 팩트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도와서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바램이 담겨야 한다. 전북도는 다른 현안들을 챙기는 가운데 벤처 기업들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벤처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이라고 가볍게 보아서 안된다. 벤처기업들도 잘 나가 지역 경제가 숨을 크게 쉴 수 있을테니 말이다.

전북도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열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벤처기업들 속에서 밝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전북도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려운 기업들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늘 그랬거니와 돈이 돌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벤처 투자 시장 규모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저번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전북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전국의 1%에 불과했다니 하는 말이다.

정말이지 전국 대비 1%는 너무했다. 전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도내 벤처기업들을 편들고 육성되어야 한다. 조금이나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는 도내의 여러 벤처기업들이 애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는 도내 벤처기업들의 생존률이 저조한 것에 생각이 많아졌다. 벤처기업들이 재료를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전북도는 벤처 기업 경영진들을 고무시킬 정책을 내놓아야겠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위대에 짓밟히는 콜럼버스 동상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 폴에서 10일(현지시간) 인종차별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미 대륙을 발견한 인물로 평가받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발로 밟고 있다.

독자제언

세상에 공짜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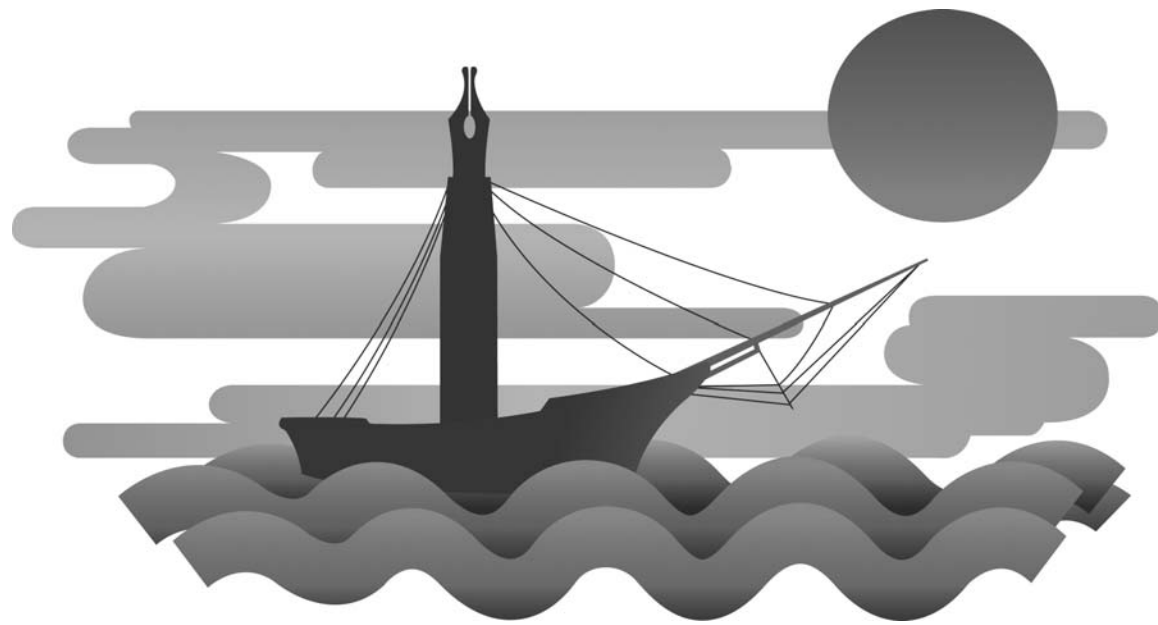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최근 전주지역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430억원 규모의 투자사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이 대표인 피의자가 투자를 할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 나머지 서민 투자자들을 유혹하였고 피해자들은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이다. 전세계 약2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100여 개 지점이 있는 국제공인 '사기(부정)조사관 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는 21세기는 사기범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기범죄도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기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사기 범죄의

취약요소인 대표포장, 대표폰, 가짜 사이트, 바지사장 등을 제거해야 하고,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참여와 민간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사기에서 지키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로 조금하게 선택하지 말고,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용도, 상환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 만약 상대가 감정과 의리를 언급한다면 과감히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왜 나에게 왔는지 의심하고 의심해야 한다.

신광일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 경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